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 17:14)"

1. 의료선교 (2월 5일~7일) *3일*6곳*500명..ㅎ

2명의 의사선교사(양승곤, 정현욱 선교사님)가 안시라베를 방문해서 3일간 6곳(교회, 군경찰, 동사무소 등)을 진료하며 500여명의 환자들에게 치료와 사랑을 전했다. 오전,오후로 장소를 바꿔가며 3일동안 박세게 진행된 의료 사역은 두 의사 선교사와 10여명의 도우미들의 활약으로 이루어졌다. 후아~~ 진짜 바빴지만 정말 너무 의미있고 감사한 시간이었다...!



긴장과 묘한 침묵 속에서 주사바늘을 깊~~이 받아 들였던 환자의 "끔~~" 하는 신음 소리와 시종 깔깔거리는 도우미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진료 후 그들의 아픔과 삶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며 함께 기도하는 소리들...!! 시작예배(말씀), 진료와 통역, 진료후 기도, 접수와 안내..등 6파트로 나뉘져 이루어진 진료 사역은 감사하게도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었다. 그 바쁜 와중에도 웃음과 미담을 수시로 나누며 환자들의 긴장을 풀어주셨던 양승곤 선교사님, 사뭇 진지한 태도로 환자들을 세세히 돌보셨던 정현욱 선교사님, 이 두 분이 이 사역의 핵심이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Pu3qj8bB3NCou98_T6au7TmZwOQvwIH-/view?usp=sharing)

또 하나의 특별한 부분 하나가 양선교사님의 손녀딸 은후의 참석이었다. 선교여행을 통해 하나님 계획하신 자신의 미래와 비전을 찾고 싶다며 할아버지를 따라 3개월간이나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를 다니던 은후가 이번 사역에 함께 참여 했던 것. 의사로, 아버지 학교의 리더로 오래 섬겼던 할아버지의 신앙과 인품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할아버지를 따라 3개월간이나 선교를 함께하는 은후는 16살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영적 성숙과 깊은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다.

...후와~~ 진짜 이쁘네~~^^



EBS(영어성경공부)멤버들의 섬김은 이번 사역이 부드럽게 진행되도록 만들었던 윤활유였다. 여섯 장소마다 6명에게 계속 다른 역할을 맡겨 실제 복음 나눔의 훈련을 시키고자 했던게 우리의 계획!! 나름 성공적이었다..ㅎ

"여러분들이 오늘 아파서 의사를 찾아 왔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여기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그 분을 만나고 가셔야 합니다."

EBS 영어 성경공부 멤버인 16살 Jessia(제시아)가 전했던, 환자들과 함께 드렸던 사역 전 예배 말씀에 어른들 모두가 끄덕 끄덕... 나도 끄덕 끄덕..^^



걸음조차 제대로 건지 못하고 부축을 받아 왔다가 치료 후 스스로 걸어 나가는 사람들, 팔이, 어깨가 아파서 왔는데 치료를 받고 보란듯이 팔을 빙빙 돌리며 웃으면서 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도 힐링이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을 수 없어요.."

그들 모두에게 돈이 좀 더 생긴다면 이런 아픔들이 다 없어질 수 있을까? 결국 그들은 주님이 필요한거다.

2.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단기선교팀 (2월 27일~3월 8일)



캐나다 토론토 서부장로교회의 7명의 단기 선교팀과 양선교사님,은후가 함께 해 총 9명으로 구성된 이번 팀은 10박 11일간 마다의 3개의 도시를 누비며(?) 교육, 건축 수리, 의료 등 3파트로 나뉘어 사역을 진행했다. 각 파트는 2~3명씩. 그러나 수개월 전부터 교회에서 철저히 준비해 마다에 도착한 선교팀은 타나, 안시라베, 무른다바에서 사역을 진행하며 그야말로 1당 100의 전력으로 복음 나눔과 치료, 건축수리를 통한 복음의 열매들을 창출했다..

교육팀

어린이 Bible Camp는 말씀 공부와 함께 댄스, 찬양, 연극 등 여러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Deep, Deep down in my heart~~ Do you love Jesus? Yes, I love my Jesus"

연신 울동을 따라하는 이 어린아이들의 기억에, 또한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하기를 기도한다.

(<https://drive.google.com/file/d/1ReUPXOZYOBZQPz040ANnc16yYVjeVoVi/view?usp=sharing>)



땀이 비오듯 흐르는 교회당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게임하고 연극도하고, 팀원 한 사람이 아이들에게 댄스를 지도하기 위해 앞에서 댄스를 시작하자 건축팀의 도우미로 함께 일 하고 있던 아이들이 교회 안 벽에 페인트를 칠하다 말고 길다란 롤러를 흔들어대며 같이 몸을 흔들고 댄스를 한다. 몸의 움직임이 완전 살아있다..ㅋ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https://drive.google.com/file/d/1KJy_2xt1R3afJVU6o12pHnK8-dAX-ced/view?usp=sharing)

* 건축팀*



나무가 썩어서 사용하지 못하였던 어린이 놀이터가 말짱히 수리되고, 찌그러졌던 양계장이 펍! 펍! 발길질 몇번에 직각이 맞는 놀라운 맥가이버 팀!! 그러나 집에서 양계를 하는 마미(Mamy)집을 고치러 방문하고, 또 현지인 목사님 사택과 교회를 방문 수리 후, 매일 저녁 나눔시간마다 말라가시들의 참담한 삶에 맘 아파서 늘 울먹하며 말을 잊지 못하던 모습들.. 35도, 체감온도40도 이상의 날씨의 더위에도 교회마당에서 얼음을 얼굴에 계속 문지르며 일감을 더 달라던 모습들..

(<https://drive.google.com/file/d/1QzrcpboeYE6lOngkKlrUW43oInDTI9ue/view?usp=sharing>)

* 의료 사역/ 마사지 사역*

환자들이 치료 후 통증이나 증세가 완화되어 돌아가기도 하였지만, 때로는 잠시 잠깐의 시술과 주사로는 해결할 수 없는 환자들도 많이 왔다. 그럴때는 성령님께 기도로 간구 할 수 밖에 없었다. 한쪽 귀가 아예 안 들려 의사를 찾아왔던 한 환자를 보며 이걸 의술로 되게 아님을 느끼고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했다. 그리고 간단한 시술 후에 귀가 정상적으로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모두가 진짜 많이 놀랐다. 침을 놓으셨던 장로님까지...ㅋ 마치 베드로가 옥에서 걸어 나와 놓임을 받은 후 여종이 안에 들어가 이야기 했을 때 제자들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던 것 처럼...ㅋ 놀람을 넘어서서 경이..?? 그런 것이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8kDRsDJ9QLMzl5jDuvDNxhH-FVslGmHi/view?usp=sharing>)



의료사역과 함께 행해졌던 여성들을 위한 마스크팩 시간은 그야말로 20여분 동안 사람을 눕혀놓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 나눔의 장이었다. 자기 이야기부터 시작해 가정이야기, 힘든 관계들..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함께 울고 결국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영접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VwdOcxLvTieWrD0_owVDY68T_ehxoa94/view?usp=sharing)

무룬다바 사역의 꽃은 길거리 전도였다.

현지 교회 두 곳과 연합으로 진행한 길거리 전도는 매일 저녁 한 장소를 선택해 약 2시간 동안 현지 교회 댄스전도팀과 우리 팀의 말라가시어 찬양과 스킷(무언극), 그리고 말씀 선포의 시간을 같이 가졌다. 댄스 팀은 그냥 한번의 댄스 공연이 아니었다. 하나 당 약 3-4분의 안무를 7~8개 찬양과 가사예에 맞추어 두명, 세명, 여섯명 혹은 전체팀(20여명)이, 마지막에는 모인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하는, 온몸으로 드리는 찬양과 예배의 시간이었다!!



발에는 값싼 핑크빛의 낡은 슬리퍼를 신고 있었지만 그 아이들의 발놀림, 몸놀림은 달랐다. 관중들이 몰리고 순서가 하나씩 끝날 때마다 환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 그리고 그 후에 이어졌던 말씀 선포. 그 길거리 전도 후 첫 번 주일에 그 날 말씀을 전했던 현지 목사님 교회에 새로운 신자들이 꽤 많이 왔다고 한다. 복음전파의 열매..^^

(https://drive.google.com/file/d/1gaGYjyJG9wlj70U2o9M_FUQQpKa6oejm/view?usp=sharing)

사역은 좋았지만.. 날이 정말 너무 더웠다. 매일 33~35도! 땀을 너무나 많이 흘려 우리 팀원들은 화장실을 거의 가지 않았다. 그리곤 온 몸에 땀띠가 나고...

이미 벌써 두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때가 참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팀원 중 한 장로님은 또 오고 싶으시단다.. ㅎ 언젠간 다시 이루어지겠지. 그 아름다운 시간들이...^^

3. 가정 양계 프로젝트!!

말라가시 극빈가정을 선별하여 양계를 통하여 경제적 자립을 하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집 뜰에 양계장을 지어주고 기본 양계를 위한 도구들(물통, 먹이통..)과 하루 된 병아리 30마리, 그리고 성장을 위한 45일간 사료, 난방용 숯 등을 지원하여 스스로 사육하고 판매하게 하여 그 가정의 경제적 문제와 영적 성장을 이루는게 목표다. 45일간 키워 육종으로 판매하면 약 30만 Ar (약 10만원) 가량의 순이익이 남는다.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 돈이면 두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낼 수 있고 한 가정이 조촐하게 먹고 살 수 있다. 50마리를 키운다면 더 여유가 생긴다.



EBS 멤버인 누엘슨(Noelison)과 엘리사의 아버지 마미(Mamy)를 가정양계의 첫번째 시범 케이스 시행자로 선정하였다. 누엘슨의 양계장은 지난 캐나다 건축팀이 우리 집 뜰에 목재로 설치했고 그 양계장을 누엘슨에게 맡겼다. 누엘슨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와서 병아리들을 사육하고 있다. 자기 인생에서 첫 번째 비즈니스라며 어찌나 열심히 하는지... ㅎ 그런데 벌써 병아리 한 마리가 죽었다..ㅠ 4일된 병아리 한마리 죽었다고 어찌나 시무룩해 하는지... ㅋ



마미의 케이스는 조금 달라서 마미 집 안의 빈 방에서 닭을 키운다. 집 안의 방 안에서 똥 냄새 지독한 닭 30마리를 키운다는게 우리한테는 조금 의아하지만 이곳에서는 아주 일반적이다. 겨울철 난방문제 및 분실의 위험을 고려한 조치이다. 참여하는 가정들이 10가정, 20가정, 30가정으로 늘어나게 되면, 가정당 150Kg의 사료 제작은 몇 톤의 양이 될거고 목재 벽돌로 지어질 양계장 설치 등 큰 작업이 되겠지만 이러한 일과 닭관리는 교회 교인이며 축산대학 교수인 솔로몬(양계 프로젝트 자문위원)과 누엘슨이 담당하고 나는 참가자들의 영적 양육을 집중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참여자들을 그룹으로 나누고 매 주 정기 만남을 가지며 말씀공부와 주중 삶의 나눔을 통하여 주님이 계획하신 꿈을 같이 꾸어 가려고 한다.

이 일은 영적, 경제적 측면 모두 중요하기에 닭이 잘 커서 돈을 많이 받아야 하고 가능한 한 심플한 환경에서 닭이 커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찾아야 한다. 40일 후에 나타날 첫 양계의 결과가 기대된다!!!

4. 앞으로 진행될 일들

* MBS (Malagasy Bible Study-말라가시 성경공부)

양계와 비주제작 참가자들과 함께 하게 될 말라가시 성경공부/MBS를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 사랑교회 단기선교

7월 4일~15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사랑교회에서 6명의 팀원들이 단기선교를 옵니다. 이번 선교는 저희가 예전부터 꿈꾸어 왔던 피아나와 마나카라를 내륙으로 운행하는 기차 (역) 전도와 마나카라에서 머물게 될 3일 동안의 도시 전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도편지때 자세히 나눌게요.

5. 진행중인 일들

-EBS (English Bible Study-영어 성경공부)의 교재 3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교재부터는 학생들이 한 과씩 준비해 직접 EBS 성경공부를 인도하며 자기 집에서 우리 EBS 모임을 갖고 가정방문을 겸해 하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기들 주변의 아이들을 모아 자기들의 EBS 그룹을 만들어 성경공부 리더자로 서는게 저희들의 1차 목표입니다.

-MBS (Malagasy Bible Study-말라가시 성경공부)를 위해 첫번째 그룹 멤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정도 해 온 두 대학의 강의는 곧 있을 시험 기간을 끝으로 긴 방학에 들어갑니다.

-비주 클래스는 몇 차례의 모임, 훈련 후에 2~3명의 지원자를 중심으로 다음 절차를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본가 식구들 형님 1분, 누님 4분이 이번 토요일부터 약 2달간 마다와 저희 집을 방문합니다^^ 누님 중 한 분은 마다 선교 사역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방문합니다.

마다와 저희 가정을 위한 여러분의 끊임없는 중보와 관심에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4. 5. 9.

마다에서 이광수, 김정아 선교사 드림.